

“주는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사하라 사막서 죽어가는 아프리카 난민 급증

알제리, 14개월간 1만 3000명 난민 사막으로 추방

알제리가 14개월간 1만 3000명 이 넘는 난민들을 사하라 사막으로 내몰았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난민들의 유럽행을 막으려는 유럽연합(EU)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은 알제리에 모이지만 식량과 마실 물도 주어지지 않은 채 때로는 총구의 위협에 몰려 48도의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지나도록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결국 사막을 완전히 건너지 못하고 도중에 목숨을 잃는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첫 집계가 시작된 2017년 5월 137명이던 추방 난민 숫자가 2018년 4월에는 2888명으로 늘어났다. IOM은 같은 기간 사하라 사막을 건너 니제르로 도착한 난민 수가 1만 1276명이며 최소 2500명은 이웃 말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에서 도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신한 상태에서 운 좋게 유엔

구조팀에 발견돼 생명을 건진 제넷 카마라는 “많은 남녀가 사막에 쓰러져 죽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 그저 사막을 헤매다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주권 국가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한 난민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EU로부터 지원을 받는 니제르와 달리 알제리는 EU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GNPNEWS]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이사야 25:4)

기도 |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 되시는 주님께 사막으로 추방당하는 난민들을 의탁합니다. 열방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난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생명으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 난민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다음 호는 7월 29일자로 발행됩니다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제공: WMM

-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 강렬한 원색의 의상, 흥겹고 역동적인 여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마치 찬양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아프리카의 찬양은 대개 앞에선 몇 사람이 이끌고,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른다. 이 찬양은 경배(worship)의 표시다. 경배는 마땅히 드릴만 한 대상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피조세계에서 유일하게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과 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은 없다. 그분은 유일하게 거룩하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모든 피조세계가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 받았다. 그분의 뜻이 아니면 지금, 여기 존재할 수도 없다. 이런 경배를 나 자신에게, 혹은 우상에게, 혹은 광적인 어떤 대상에게 드릴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숭배하며, 나에게 경배와 찬양을 했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 이 경배를 드리자. 그것이 합당하다! [GNPNEWS]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요한계시록 4:11)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1)

때때로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입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솔로로 혼자 있을 땐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자녀가 없을 땐 자녀만 생기면, 물질이 없을 땐 재정적으로 안정만 되면 마냥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있고 돈도 있는데, 더 채워져야 할 것 같은 공허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당신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

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답을 알면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알 수 있으며, 해결 방법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흠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 가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만드신 분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모든 허무는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허무함을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바로 한없는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더욱 허무합니다. 그런데 답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해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 장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 대신 감당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이 당신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



일러스트= 김경선

으로 모셔 들이세요. 당신을 만드신 분이 당신을 가장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에 들어가십시오. 인생의 허무에 안녕을 고하십시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한국

순회선교단, 합신 이대위의 복음학교 문제 제기에 반박 공청회 7월 중 개최 2면

기획 |

합신 이대위의 복음학교 이단 시비 ... 반대 의견 “뭇물” 3면

인터뷰 | 크리스토퍼·캐서린 선교사 부부

“복음을 나누면서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순회선교단, 합신 이대위의 복음학교 문제 제기에 반박 공청회 7월 중 개최



▶ 지난 6월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순회선교단 박종진 선교사

순회선교단(이하 선교단)은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방적인 견해일 뿐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오는 7월 중 이에 대한 반박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합신 이대위는 지난 6월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가 *복음을 ‘나의 복음’ 공개자백으로 변질시키며, *지역교회와 갈등을 일으키며,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해 이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교단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데 이어, 이같은 문제 제기는 사전에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해명이 가능한 사안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선교단에 대해 사전 문의 및 자료제공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한 개인과 단체를 이단으로 모는 치명적인 낙인을 찍

는 일은 적절치 않으며, 내용상 공정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교단은 이대위가 공청회 이후, 이대위 주장 영상만 인터넷에 배포해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듯한 부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교단은 공청회에서 선교단의 김용의, 박종진 선교사의 공청회 발표 영상을 이대위 관계자들의 발표 영상과 함께 유튜브 등에 공개해 시청자들이 직접,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김용의 선교사가 운영하는 김용의TV의 관련 영상의 댓글에는 복음학교에서 훈련을 받거나 김용의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1천여 명이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있다.

유튜브 아이디 ‘머스트’는 “이대위 측이 공청회를 통해 제기하는 내용은 인신 모독 수준에 맞소리 붙잡기, 학력 논하기,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만으로 합신에서 공부한

입장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41기 목회자복음학교에 갔을 때 미국 리폼드 출신 목사님도 교제를 통해 우리가 배운 신학과 신앙에 대해 통탄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고했다.

또 아이디 ‘정훈’은 “김용의 선교사가 이단이라면 김 선교사 말씀 듣고 내 인생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된 나도 이단 취급하라”고 항변했다.

‘미경’이란 아이디의 회원은 “합신교단인 저희는 복음학교를 통해 은혜 받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힘내세요”라고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 측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선교단은 이대위 주장이 복음학교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난 6월 공청회에서 해명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그에게 실체가 된 복음을 말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자신의 죄를 사적, 공적으로 고백하고 사과해 생명 얻는 회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교단은 “복음학교는 교회는 하나라는 교회 일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복음학교 훈련에 참석한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대위가 제시한 완전성화론과 같은 주장은 선교단도 동의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GNPNEWS]

한국

정부 인권계획 폐해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AP의 위법성과 폐해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태 의원이 주최하고 동성애 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연합 공동대표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NAP가 결국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 교수는 “NAP에 ‘성평등’이란 단어가 27군데나 들어있다”면서 “성평등은 유엔과 서구 일부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을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며 “NAP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평등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게 되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NAP에는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NAP가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등은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기본권을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NAP가 추진하는 성인권 교육은 유럽에서 시행된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위행위의 쾌감을 가르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섹스를 위한 피임방법과 낙태를 가르치는 성애화(sexualization)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인권교육은 결국 무분별한 방종과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청소년 인권 교육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 성범죄가 200% 급증했으며 특히 또래에 대한 성범죄는 1300%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6.20 ~ 6.2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만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홍콩 교회 성추문 ‘몸살’... “성폭행 등 피해 사례 55건”

성폭행 등과 관련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는 등 홍콩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홍콩기독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집한 피해 사례 55건을 보고했다.

주님의 몸과 어울릴 수 없는 성적 타락이 홍콩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심히 부패한 마음을 결코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홍콩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난민 수용 반대”... 청와대 청원에 이어 서울 도심시위 열린다

지난달 30일까지 제주도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예멘 난민 519명이 들어오며 한국도 2015년 유럽이 겪은 난민 사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시위를 오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나그네와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을 향한 인도적, 강경적 태도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구해야겠습니다. 이슬람 사상에 매어있는 난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난민들의 믿음의 터가 옮겨지게 하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사 체포당해... 기성총회 “억울한 상황, 석방 호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필리핀)가 불법무기 소지 혐의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필리핀 현지 경찰 당국에 체포, 구금됐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 측은 관련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경찰서 출두를 명령했으나 출두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경위를 밝혔지만, 백 선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호소하고 있다.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선교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옵시요.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해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필리핀 땅에 이 한 알의 밀알로 많은 열매를 나타내게 하실 것 기대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7월 9일 ~ 7월 21일

7월 9일~7월 14일

7.9(10~12시) ▶경남 마산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7.9~12(매일 19~21시)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
7.9~10, 12~13(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9~10, 12~14(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7.9~10, 12~14(매일 10:30~11:30)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7.10(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7.10~12(매일 0~24시) ▶인도네시아 람퐁 / 람퐁 발라스코교회 (김**)010-5424-4641
7.10~13(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7.12(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7.13(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7.13(10시)~14(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7.14(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 (김**)010-4567-8775

7월 16일~7월 2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7.16(10~12시) ▶경남 마산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7.16~17(매일 06~18시) ▶전주 완산 / 전주사릉교회 (진**)010-2638-1440
7.16(7시)~20(23시)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7.16, 18~21(매일 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7.16~17, 19~20(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16~17, 19~21(매일 10:30~11:30)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7.16~17, 19~21(매일 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7.17(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7.17~20(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7.18~20(0~24시) ▶서울 광진구 / 빛과소금교회 (권**)010-7754-1726
7.19(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7.20(10~14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7.20(10시)~2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7.20~21(매일 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 (최**)010-4661-4039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 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합신 이대위의 복음학교 이단 시비… 반대 의견 “봇물”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이대위 측 주장의 문제점 지적 잇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이단 시비가 한국 교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7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대위 측 김성환, 박형택 목사의 발언 영상과 순회선교단(이하 선교단) 김용의, 박종진 선교사 등의 발언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이대위 측 문제 제기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대위 측은 공청회 과정을 정리해 올 가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대위 측 주장의 문제점**= 유튜브 아이디 머스트는 “합신 이대위의 표현대로 ‘걱정돼서’ ‘세워주려는’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개인 경로와 만남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지만 지난 4년간 이단으로 만방에 선언하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열면서 제기하는 내용이 인신모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합신 이대위는 한 목사의 개인 원한에 의한 분노로 수집하기 시작한 복음학교에 있지 않은 피해 사례를 모집하여 여기까지 왔다”며 이대위 측 조사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아이디 손호영은 “복음학교 후 하나님을 만난 뒤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다. 순회선교단을 이단으로 몰고 있는데 그 주장을 읽어보니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에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음학교에서 훈련을 받거나 김용의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1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합신 이대위 측의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이단 판정이 무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김용의 선교사의 컬럼을 게재하고 있는 본지에 합신 이대위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

는 독자들은 한결같이 이대위의 주장과 입장이 한 마디로 ‘잘못된 지적’이며 오히려 ‘합신 측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 **합신 수원노회 청원으로 촉발**=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합신의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14년 4월 합신 수원노회에서 조사를 청원한데서 비롯됐다. 합신 수원노회는 2014년 4월 30일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김용의 씨는 총회 세미나 강사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초빙 강의를 한 사람으로 (합신)교단과 학교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떤 신학을 한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건전한 단체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총회 이대위에 검증을 의뢰한다고 청원했다. 김용의 선교사가 교단 지교회에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단성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신학위원회가 2015년 총회에 제출한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검증에 관한 보고서’는 “김 선교사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복음주의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십자가 복음의 핵심 주제들은 개혁주의 전통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교단 측은 “2014년 합신 총회 결의를 통해 신학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이후,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다. 그 이후 교단의 자정을 통해 이 일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 **한 목회자의 청원으로 시작된 이단 검증**= 합신 수원노회 웹사이트가 공개한 2014년 합신 수원노회 제85회 정기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호00교회 당회장 김00 목사가 김용의 선교사에 대한 신학적 검증과 이단성 관련 총회 의뢰를 청원했다. 그러나 총회에 제출된 청원서는 뚜렷한 피해사실이 없어,



▶ 복음학교 강의 전경(순회선교단 제공)

‘김용의 선교사가 어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단체인지 확인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원을 주도한 김 목사는 2013년 10월 16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자유게시판에 ‘김용의 순회선교단과 복음학교 피해 사례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한다. ‘바로 선사람’이란 아이디로 게시된 게시물은 “저는 예정합신 수원노회 목사입니다. 김용의 씨 복음학교 순회선교단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mo***@hanmail.net”라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음학교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 대해 C국 유학생을 섬기는 한 선교사는 “김용의 선교사는 세계를 다니며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동원을 하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김용의 선교사는 신사도운동과 전혀 관련 없으며, 예수밖에 다른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주장하시니 이단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합신 수원노회 소속 김 목사의 복음학교에 대한 비판은 2017년 합신 102회 총회까지 이어진다. 김 목사는 당시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합신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선교단에 대한 외국된 사실을 발언한다.

당시 녹취된 음성파일에 따르면 그는 “순회선교단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에 재산을 바쳐야 하고 단체가 재산을 빼앗는다. 또 복음학교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위험한 단체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순회선교단을 위험한 단체로 인식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선교단은 합신총회에서 공표된 이같은 주장에 대해 완전히 왜곡된 허위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순회선교단은 선교사 허위조진

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재정원칙으로 무소유를 지향한 것이며, 복음학교는 올해로 17년째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청원서를 제출한 김 목사는 3년 뒤인 2017년 총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를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그는 지난 6월초 합신 이대위가 주관하고 있는 공청회에도 참석, 회의진행 과정을 참관한 것이 목격됐다고 선교단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선교단은 합신총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선교단에 대해 위증과 무고사실을 공표해 선교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한 해당 목회자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 **신학위, ‘김 선교사 신학 문제없다’ 결론**= 선교단이 2014년 당시부터 김 목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가 합신 교단의 지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신학위의 연구결과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신학위는 “복음기도신문에 기고된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한 김용의 선교사의 서적을 놓고 게시론과 구원론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신학적 견해나 주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용의 씨가 회개와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건전한 신학과 균형 있는 신자의 삶 그리고 지교회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이대위 활동 공정성 논란**= 선교단에 따르면,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이대위의 검증과정은 시작부터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이 결여됐다. 이대위는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순회선교단에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는 것. 이처럼 간접 조사를 벌인 이대위는 선교단에 복음학교의 진행 원리 등을 묻지도 않았다. 선교단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대위는 ‘복음학교에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선교단은 “피고가 법정에서 자기 변론을 할 기회도,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번 합신 이대위 업무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대위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 9월 총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복음학교의 이단성’을 확정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신 소속 몇몇 목회자에 따르면, 2017년 합신 총회에서 순회선교단을 이단으로 결정하려는 이대위의 행보에 참석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이대위는 공청회를 통해 선교단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부여할 뿐, 그들의 주장에는 사실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교권이라는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 한 교단 이대위의 독단과 전횡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나 다름없다.

한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목회자는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강조했다 의롭게 된 열매는 말하지 않았다”며 “구원론에 결함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야겠지만 실천적인 교리부분에 다른 관점을 갖고 강조한 것을 갖고 문제 삼으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상당수가 울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회자는 또 “복음학교에 다녀와서 너무도 달라진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기에 복음학교를 포용과 권고와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한다”며 “우리는 한 몸이기에 사랑해야 할 의무밖에 없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GNPNEWS]

본지 특별취재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필자는 특히 게시론과 구원론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적어도 아래 저술들 안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신학적 견해나 주장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의 씨는 2010년 이래 “십자가 복음이 실재가 되는 삶”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2010, PP.4-9; 2014, P.15).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 즉각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을 크게 강조합니다. 다소 강한 어조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건전한 신학과 균형 있는 신자의 삶 그리고 지교회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김용의 씨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넓게 보아 역사적인 복음주의 운동과의 연속성 상에 있으며, 소위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들은 개혁주의 전통의 주요한 강조점들과도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분석한 김용의씨의 저작들

김용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서울: 규장, 2014

김용의, <다시 복음으로> 서울: 예수전도단, 2013

김용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서울: 예수전도단, 2010

기획 | 조선선교열전 (24) - 제주도 편(6) 조남수·이도종 목사

제주의 신들러 조남수와 순교의 첫 열매 이도종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4·3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제주 전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해안가 5km를 반경으로 산악지대에 통행금지가 실시되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낮에는 나라에서 보낸 토벌대에게, 밤에는 그에 대항하는 무장대에게 시달리며 늘 죽음을 지척에 두고 있었다. 무장대를 조금이라도 도운

사람은 모두 죽일 것이라는 엄포에 혹시 오해받을까 두려운 주민들은 산 밑으로 내려갈 수도, 그렇다고 계엄령이 내려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모슬포교회에서 시무하던 조남수 목사가 모슬포 경찰서장을 찾아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된다. 자신이 중산간(한라산 중간 지역) 마을 주민들이 자수하여 내려오도록 설득할 테니, 그들이 내려오게 되면 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서장의 약속을 받고 조목사는 중산간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로 인해 3000명의 도민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예비검속(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른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

금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으로 누명을 쓰고 처형될 위기에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을 조목사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신원보증을 서서 구해냈다. 그로 인해 그는 ‘제주의 신들러’로 불렸다. 이후 예비검속에서 살아난 사람들 모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속량, 대속’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했을 듯싶다. 이때 목숨을 건진 200명 중 한 사람은 후에 자신의 생명의 담보가 되어주었던 조남수 목사의 뒤를 이어 모슬포교회에서 시무를 하기도 했다.

당시 모슬포교회는 4·3사건으로 피해 입은 양민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실천함으로 모슬포교회는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제주의 첫 순교자, 이도종 목사

이도종 목사는 제주 출신의 성도로는 첫 번째 목사이자, 순교의 첫 열매였다. 조봉호 선생과는 한동네에 살았고, 그의 전도로 이도종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이기풍 선교사의 제자가 되기도 했다.

이목사는 제주지역 구석구석을 순회하며 전도와 목회 활동을 맹렬히 펼쳤다. 당시 교통편이 없어



▶ 정순모(왼쪽)와 안내인(오른쪽)과 함께 성경학원 설립을 위해 만주를 방문한 이도종 목사(가운데)의 모습(출처: 제주의소리 사진 캡처)

먼 곳에서 교회를 찾아오기 힘든 성도들을 위해 세운 교회들에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4·3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삼엄한 분위기로 신변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느 때와 같이 순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1948년 6월 순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산에서 대정으로 가던 중 숨어있던 무장대원들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이목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목사요” 하고 자신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에 무장대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목사는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을 인정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소!”라고 답하였고 무장대에 의해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생매장되어 58세에 순교했다.

세상천지의 어느 누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자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몸 된 교회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예수 생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 12:25) [GNPNEWS]

김성옥 선교사

참고문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 '제주의 신들러'로 불린 조남수 목사의 공덕비(출처: 제주4·3사건아카이브 사진 캡처)



선교 통신

“금식하며 기도하면 천국에 가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면서 침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라마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금식을 위해 해가 있는 시간에는 물도, 음식물도 먹지 않을뿐더러 침까지 삼키지 않습니다. 길으로는 엄청 기록해 보이지만, 이 금식을 위해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밤을 먹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도 전에 밥을 먹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때는 시장이며 마켓마다 사람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통계적으로 라마단 기간에 식당 매출은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최선과 열심의 라마단

그러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노력할 뿐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노력에는 구원이 없다고 알려주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고 전할 뿐입니다.

하루는 고카(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상에는



본지 자료 사진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저씨도 종교가 있으신가요?” “하하, 저는 무슬림인데 테러자는 아닙니다” 최근 테러 때문에 미안해하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요즘처럼 라마단 기간에 금식도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확

신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코란의 법을 따르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천국에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죄를 지은 우리는 뚜

한 예수스(Tuhan Yesus 구주 예수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모든 종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힌두, 불교를 믿어도 모두가 구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내릴 때가 되어 아저씨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당장에 영접은 못 했지만 씨를 뿌리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순종

아랍권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전도를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여 날마다 사막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양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원래 위대하

신 신의 명령을 받고서 전하러 왔는데 못 전하고 있으니 답답하여 울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 우두머리가 우리가 들어줄테니 울지 말고 전해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들은 강성 무슬림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면 놀리는 마음이 있어 하루 하루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단지 현지에 적응하고 삶의 무게에 치여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선교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기만을 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씨앗을 뿌립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GNPNEWS]

인도네시아= 박 요게벳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나누면서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음만 남은 크리스토퍼·캐서린 선교사 부부

성남의 한 교회 카페에서 크리스토퍼, 캐서린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인터뷰에 응한 그들의 첫마디는 자신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눌 게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복음스터디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 이야기밖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크리스토퍼(이하 크리스): “2013년에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에 간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에 던져지고 보니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졌습니다. I국에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문제해결, 기적의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열심 또한 대단합니다. 40일 금식기도도 어렵지 않게 하면서도 그것이 어느새 자기의 자랑이 되고 맙니다. 현지 목회자들과는 친구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복음 강의를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만난 복음이 이곳에도 선포되지만 바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공급되나.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기도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시면 그분을 돕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캐서린: “기도한 지 2년이 채 안되어 복음학교로 국내외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I국 남부지역 선교사들과 교체하고 싶다면요. 저에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I국에 올 때마다 날이 새도록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 “그러나 언어 때문에 쉽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한국의 아웃리치팀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이 준비한 복음스터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막상 복음을 전해보니 저 또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영어통역을 하다 보니 적당한 단어 선택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누가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복음이 선포될 날을 대비해 영어로 자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문장들을 번역하려면 어떤 단어가 좋을지 묵상해야 했고 그 내용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순서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복음을 물랐구나. 복음훈련을 받았을 때 이런 내용도 있었나?’ 하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포할 복음을 영어로 번역하며 준비

- 먼저 복음의 수혜자가 되셨군요? 누가 오셨나요?

크리스: “계속 한국의 도움만 바라던 저희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복음스터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게된 현지 목회자 친구들이 ‘너, 복음 강의 번역하고 있대며? 우리도 공부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친구지만 복음에 대해 깊이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메가 처치(Mega church)를 꿈꾸며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중되어있고 또 사역에 관한 주장을 강하게 펼칠 때면 대화의 한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고 동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런 말을 듣

- 믿음으로 용기를 내셨군요. 그래도 스터디를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 “3개월 동안 매주 한 번 모여 공부를 하기로 하고 첫 모임을 준비하는데 너무 긴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보기도자들에게 릴레이 금식기도표를 짜가며 기도부탁도 드렸습니다. 3주 치 분량의 원고를 완성하면서 제게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저 혼자만의 부흥회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현지 목회자들에게 나눌 생각을 하니 내가 말해놓고 ‘복음으로 못살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해야 합니까?’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시더군요. ‘너 정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맞니?’ 곧바로 ‘네’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는거냐는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 숨겨져 있던 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두려움 이면에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안 되는 내 존재가 드러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목회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게 복음이란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I국 교회 안에 이 복음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종이 나눠주면서 읽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모임이 지속될 수 있을까 염려도 됐는데 목회자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나눠주지만 하면 스피치처럼 뻘아들이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번역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실제, 죄에 관해 이야기 하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3개월간 복음에만 집중했습니다”

- 놀랍네요. 복음을 만난 현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캐서린: “그들은 교회에서 복음스터디를 통해 자신들이 만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목회자들이 있다. 여기서도 공부하자. 지역도 여러 곳인데 10시간씩 떨어진 거리, 게다가 남편은 학교도 다녀야 하는 상황에 도저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합숙으로 진행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처음 들어본다는 ‘복음’

크리스: “한국에서는 5박 6일간 복음학교를 하는데 과연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면 현지 목회자들이 올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일단 칸나다(kannada)어로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즉석에서 통역하면 제대로 통역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메시지가 가감 없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2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없는 칸나다어와 텔루구(telugu)어로 먼저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문 번역사들이 먼저 번역을 하면 복음스터디를 한 사람이 철저히 검수를 했습니다. 절대 복음의 농도를 희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힌디어가 그렇게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마쳐지고 4일 합숙 복음스터디가 시작됐습니다”

- 합숙 복음스터디는 어땠나요?

캐서린: “합숙훈련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휴대폰을 4일간 반납하도록 하고, 약속시간에 늦는 이 나라 문화 때문에 첫 강의시간 5분만 지나도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 외에는 재정이나 선물을 주는 등의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사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안내한 후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만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 목회자인데 대충하고 나가서 나 복음스터디했다면서 지식으로만 복음을 배웠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물론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도 사람들이 과연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담이 되어 한국 중보자들에게 금식기도 부탁을 또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못 박는 게 있습니다. ‘나는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도 할 때마다 배운다. 아마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 주님이 계속 복음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주님은 나날 때마다 제가 먼저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덩달아 목회자들도 더 깊은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스터디 1기 때가 기억납니다. 온도는 40도, 쉬는 시간 15분, 식사시간 30분. 3일째 되니까 저의 체력이 안 되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쉬는 시간을 30분 갖자고 했는데 왜 30분 쉬냐, 자기들은 15분이면 된다는 말에 15분만 쉬면서 그렇게 은혜 중에 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요청하는 순회복음스터디

- 복음을 사모하는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네요.

캐서린: “집중 복음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였던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이 복음의 물결이 I국 안에서 일어나길, 성령님이 일으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도 집중 복음스터디를 해달라고요. 여기저기 가야 하니 한꺼번에 갈 수도 없고 결국은 1개월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 (6면에 계속)



▶ I국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

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간 ‘번역이 다 안 됐는데,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못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의 솔직한 심정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나도 공부해야 할 사람이지 가르쳐줄 상황은 안 된다. 그러니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우리 같이 공부하자. 성령님이 우리를 왜 안 가르쳐주시겠냐?” 그렇게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같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나 죽은 거 맞고, 내 이름표가 아니라 주님 이름표 붙이고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 복음스터디를 하는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크리스: “자료를 나눠주고 함께 읽었습니다. 만약 이해를 못했을 땐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내용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면서 저도

본지 자료 사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5)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속박에서 벗어나자고 외쳤던 중세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떠돌아댔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 잔뜩 쌓아 올린 위기의 불덩어리 위에 앉아 있는 꼴이다.

역사 내내 인간은 이 세상을 개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성공할 수 없었다. 세상을 개혁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제도의 변화로는 안 된다. 좋은 법으로도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하는 인간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서로를 찌르고, 죽인다.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바꾸면 개혁은 요원하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혁명도 인간 자체를 바꾸지 못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스스로 얼마나 악을 자행했는가!

세상의 개혁은 사람의 변화에

결국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존 재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시 19:10~11) 금

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세상은 돈과 소유에 미쳐 있다.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 그의 생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소유했던 부(富)와 성공은 죽어가던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병들어 누워 있던 그의 침상 곁에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과 나누었던 추억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금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고 취(取)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그 어떤 소유보다, 쾌락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러스트=노주나

단 한 가지는 바로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다.

또 주의 종이 경고를 받기에 성경 말씀에 견줄 것은 없다. 말씀은 인생의 가장 안전한 가이드(guide)가 된다. 인생은 지뢰밭과 같다. 불행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위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운명을 어디에 걸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있을까? 순종의 이 길보다 더 완벽히 보장된 성공은 없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2016년 12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Interview

<5면에 이어>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그렇게 한 기수, 한 기수 진행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 내용을 들으면서 살아왔고 책도 읽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삶은 복음으로 전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깨닫게 되었죠. 또 현지 목회자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도 기쁨이 되었지만 이 복음스터디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부부는 죽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 어떤 부분에서 두 분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셨죠?

크리스: “진짜 안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나 복음을 내가 살아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아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일어나는 미움은 해결이 안 되더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내를 참소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기도 아닙니까. 그때 한 목사님의 책을 통해 부부관계를 통해 자아추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와 부딪칠 때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결국 나를 위해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아내, 선교사. 이런 그림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답답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자아추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에 함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나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주셨습니다. ‘너 아직도 복음으로 너를 고치고 개선해서 완전한 너를 만들고 싶어하니?’ 그런데 말씀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새 생명을 받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계속 솟아나는 샘물같이 계속 새로움을 받고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내가 아닌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새 생명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Y.K.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1년 52주 연속.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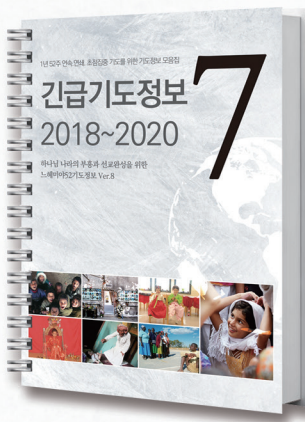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긴급기도정보를 한 권에 수록
-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국 000선교사 부부



7월 발간 예정. 사전 주문 접수 중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기도 24-365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버스에 몸을 싣자 주님이 응원해주시는 듯했다”

신앙공동체훈련학교의 섬김이로
의 부르심은 정말 쉽지 않은 걸음
이었다. 1년간 복음으로 훈련을 받
으면서 거의 바닥난 재정 상태, 가
족들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만
류 등.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와 상황들로 인해 나는 세상으로
당장 뛰쳐나가야 할 것 같았다.

20년 넘게 밤낮 한 번도 쉬지 않
으시고 일만 하시는 아버지는 내가
아홉 살 때부터 나와 남동생을 홀
로 키우셨다. 능력도 없고 사람들
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겐 늘 자
랑스러운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
을 부정하며 제사를 지내신다. 매
주 찾아가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
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구원을 위
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대신하고
싶은 사랑하는 동생은, 사업의 실
패로 빚이 쌓여 삶의 무게에 짓눌
려 죽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은 나
와 함께 살았을 때를 회상했다. 밤
새 복음을 나누다 한숨도 못 잔채
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도, 아무
리 힘겨워도 죽음을 생각한 적 없
었다고 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다며 혼자 그렇게 가면 남겨진 가
족과 빛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에



일러스트= 김효정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한데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음이 요동쳤다. 그때 주님이 잠
잠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지수
야, 너는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니?
어떤 상황이든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선한 목
자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기억
들을 떠올리게 하셨다.

복음을 알고 난 후, 가진 모든 것
을 무작정 드리고 싶어 헌금을 다
하고 온 날, 주님은 친척을 통해
두 배로 재정을 주셨다. 일을 하면
서 찬양이 듣고 싶을 때 라디오에
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나
왔다. 몇백만 원의 아웃리치 재정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
대로 채워주시기도 했다. 다 기록하
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

께 하신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다.

내가 내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
음보다 하나님이 더욱 그러하시다
는 마음을 주셨다. 동생의 구원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고 고
백했지만 주님은 먼저 나를 살리
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주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셨다.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결단의 연
속이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께 초점을 집중하지 않으면 무너
져 내릴 것만 같았다. 마지막까지
우물쭈물하던 내게 하나님은 은
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와 절대
적인 믿음을 붙들게 하셨다. 가까
스로 훈련학교에 가는 버스에 몸
을 싣은 내게 주님은 “잘했어, 지수
야!”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
시는 듯 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을 위해 밥을 짓는 섬김으로 부르
심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직업과
겹치면서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
함께 하는 지체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지도 모른 채 오해하
는 지체의 모습에 괜히 서운해지려
했다. 그런 내게 주님은 지금 하나

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감사했다. 모든 상황 속
에서 내 생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배우
게 되었다. 이후 물 한 잔을 갖다 주
는 섬김에도 마음을 담았다. 밥을
차릴 때도 예수님이 드실 밥상을
준비하듯 마음을 쏟았다. 몸이 지
치고 피곤할수록 찬양 한 곡이, 말
씀 한 구절이 꿀솜이처럼 달았다.

모든 것에서 별레만도 못한 내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이 감
격스러웠다. 내 형편은 조금도 나
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몇 개
월 후 어쩌면 똑같은 상황일지 모
르지만,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
는 주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의 때
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
실 것을 신뢰한다. [GNPNEWS]

홍지수(복음사관학교)

* 민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
의 삶을 나눠주세요. 민음의 증
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한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을 기억하라!”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
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
고 있다. 이번 호는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
에 대한 호소를 담았다. <편집자>

지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이
후 북한에 진정한 변화가 오기 위
해서는 절망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추가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
기되는 가운데,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유린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오피
니언 코너에 한 탈북 여성의 동영상
상을 최근 소개했다. 13살에 북한
을 탈출한 박연미 씨는 동영상에
서 미국이 김정은에게 인권 유린
을 종식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최악
의 인권 국가 기록을 갖고 있다. 강
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인민을 통제
하기 위해 주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했으며 자신의 가족(김정남)을 암
살했다. 나는 13살에 북한에서 탈
출했다. 그때까지 내 인생은 가혹한
고문과 같았다. 나는 2~3백만 명이
죽어 나가는 기아에서 살아남았다.

살기 위해 잠자리를 먹었고, 굶주
려 죽은 사체를 보며 학교에 가야
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10년이
넘게 복역했다. 가족에게 줄 식량을
구하기 위한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
다... 김정은은 영악하다. 이 순간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이미지 세탁을
할 것이고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얼마나 최고인자 입증할 것이다. 나
는 이 장면을 이전에도 본 적 있다.
7살 당시 나의 ‘신’이었던 김일성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그 이후
어떻게 됐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
다. 김정일은 부자가 됐고 김대중은
노벨상을 받았다”

목발의 탈북민 지성호 씨는 미북
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현지시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
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지 씨는 이날 미국 워싱
턴 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민
주주의수호재단 주최 포럼에 참석
해 “(북한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지 씨는
“보통 한반도 통일을 말할 때 영토
적인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통일이다. 남북이 통
일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죽어갈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답변할 책임이 있다. 당신들의 인
권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6년 지성호 씨는 식량과 맞
바꾸기 위해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고 시도하다 굶주림에 탈진
해 선로에서 기절했다. 지나가던
열차가 지 씨를 덮쳤고 그는 가까
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다리를 절
단해야 했다.

“2000년에 목발을 짚고 중국으로
건너가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
왔다. 북한에 돌아와 경찰에 잡혔
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
으로 넘어가서 구걸한 건 공화국
의 수치라고 했다. 다리가 없는 제
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
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
이다.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받
았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
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
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 그
런 불의가 저로 하여금 북한을 탈
출하게 했다... 라오스 국경을 넘
을 때 목발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



▶ '2014세계젊은이지도자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연설하는 박연미 씨(출처: 유
튜브 캡처)

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
스러웠다.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
통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동아
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
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상황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도 불가분의 관계”라며
“무기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노동력
과 자원들은 북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사용되어야한다”고 밝
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GNPNEWS]



영혼의 영적 혁명

하나님의 어떤 활동은 우리
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
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활
동을 ‘선행적 은혜’라고 한다.
죄를 깨닫는 것,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 영원한 가
치들을 추구하고 싶은 강렬
한 욕구, 죄악의 가증스러운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등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서 일하실 때, 우리가 의식하
지 않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중생의 기적과 성령님의
기쁨부음이다. 하나님이 구속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
하실 때 그들의 행동이 변하
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의 변
화를 알아보게 된다.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
에는 도덕적 변화가 즉각 나
타난다. 영혼의 내부에서 일
어난 영적 혁명은 영혼의 외
부에서 도덕적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규장각>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보이드 루터 〈여성, 숨겨진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성 제자들을 주목하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우선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가 먼저 떠오른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을 드렸다. 그들이 앞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겪으며 제자로 세워지기는 과정은 성경에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예수님을 따

랐던 여성 제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다소 간결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성이었던 제자들을 주목한 점에서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그녀들의 믿음과 용기,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경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자신이 잉태하게 될 것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낳게 되리라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엄청난과 받기 어려운 말을 마리아가 단순한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고 믿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또 어머니로서 양육한 마리아는 제자

된 마음으로 그분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갔을 것이다. 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지만 제자로서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다. 또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제자로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지 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평생 구원자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요,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충성스럽고 경건한 제자였다.

어머니인 동시에 제자인 마리아

충성스럽다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백발의 제자로, 엘리사벳과 안나도 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안나는 남편을 일찍 잃은 후 금식과 기도의 삶으로 평생을 살았다. 백발이 되기까지 긴 세월을 한결같은 인내와 충성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담대한 부활의 목격자이자 두려움 없는 증인인 막달라 마리

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특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됨의 귀한 본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밖에도 참사랑의 본을 보이며 선행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도르가, 물을 구하다가 영생의 생수를 얻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 섬기는 리더이며 역동적인 조력자였던 브리스길라,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키워낸 유니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문안하던 뵈뵈와 같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왔던 믿음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책 가득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하지만 전부로 드리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안나와 같은 충성됨과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인내가 내게 있는가? 비참하고 처절한 십자가 밑을

떠나지 않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가로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안에 보이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눈물로 부어 드린 마리아의 헌신과 경배가 내 삶에 드러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이 삶이 되었던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책을 읽으며 이와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믿음의 열정, 소망이 내 안에 솟아남을 보게 되었다. 그 제자됨의 삶에 넘쳐나는 생명과 아름다움이 나의 삶속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나와 이 땅의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가기를 기도하며 오늘 허락하신 일상 안에서 작은 일부터 순종의 결단을 주님께 드러본다. [GNPNEWS] 강영숙 선교사



“무언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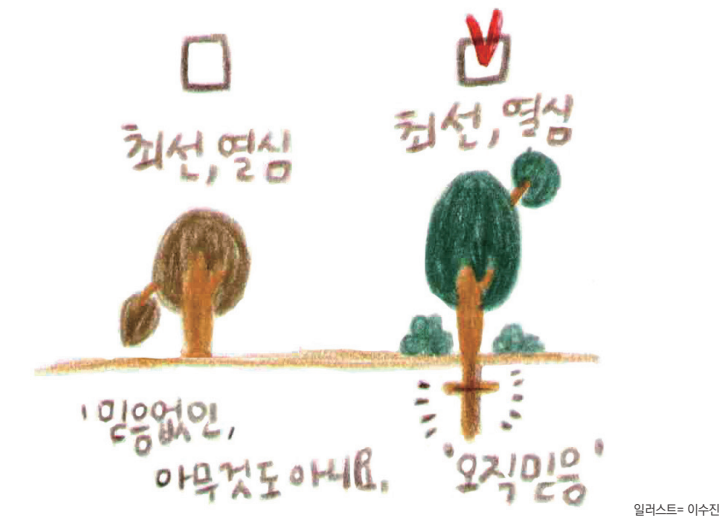
얼마 전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일주일째 한 번씩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날은 유독 골반과 고관절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몸 상태를 말씀드리고 치료하던 중 선생님은 더 좋아지지 않은 상태를 보고 “혹시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로 운동했어요?”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지?’ 생각하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심?’ 이 얘기가 치료하는 내내 매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믿음인가? 최선인가?

선교 공동체에 들어와 처음부터 건강 때문에 지체들에게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니 통증은 조금씩 차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싶으면 다른 곳이 아프고, 또 그곳이 괜찮으면 다른 곳이 아파져왔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 무언가 하려고만 하면 또 쉬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지친 마음에 어느새 감사보다

“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은
나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

는 지체들의 섬김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휴~ 왜 이렇게 계속 아파? 운동은 하나?’라는 걱정, 말도, 건강을 위한 조연도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 빨리 나아야지!’ 편치 않은 마음에 이 상황만 해결되고 벗어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도, 밥 한 숟갈 더 먹는 것도 내가 무언가 더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다짐과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 역시 병원에서 하라는 매일 30분 걷는 것 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최



일러스트= 이수진

선을 다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나의 노력은 몸에 무리를 주어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최선의 결과가 치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치료로 허락해주신 시간 동안 나는 뭘 한거지? 자책이 뒤따를 때 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고 계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상황의 변화보다 ‘오직 믿음이야!’를 붙잡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으로 충분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계속되는 치료 가운데 이런저런 나의 원함과 여지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찢히게 동행하게 하실 시간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GNPNEWS] 장선화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6. 7 ~ 6. 26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관모 김사회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정대 김정화 김혜신 박상기 박숙자 박승은 백승희 안병윤 안수경 위인아 유자인 이 순 이정희 이준진 이진희 장선주 정금자 정진미 정해월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형광 주유순 주 하 차인순 차정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돌교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쉼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은혜신일교회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전주은누리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주만교회 주식회사미션21 천보산민족기도원 헬시바교회 CGI GNF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